

일러스트레이션에서의 오토마티즘 기법 -호안미로의 작품을 중심으로-

The study of automatism in illustration -Focusing on the work of Joan Miro-

김정은, 오치규*

충남대학교, 충남대학교*

Kim jeong-eun, Oh chi-gyu*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요약

초현실주의 운동이 일러스트레이션 분야에 끼친 영향은 미술사의 그 어떠한 운동보다 강하다. 일러스트레이션에 현대 사람들이 요구하는 풍부한 감성, 상상력, 표현의 목적에 잘 부합하는 이유에서이다. 오토마티즘은 외적인 자극과는 무관하게 이성의 통제가 없이 인간 내면의 목소리를 옮겨 표현하는 기법이다. 이렇게 표출된 선과 형태, 또는 말과 글은 자연히 인간의 무의식 세계를 반영하고 보는 사람에게 있어서 또 다른 나의 실존을 느끼게 한다. 오토마티즘은 무의식의 권리를 밝혀내고자 하는 초현실주의 회화의 가장 중요한 대명사이다. 초현실주의의 창의적 작품세계로 당대에 강렬한 영향을 미친 호안미로의 작품에 나타난 오토마티즘적 요소를 분석하고, 이 기법이 현대 일러스트레이션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발견해 보고자 한다.

I. 서론

순수미술이자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목적 미술이기도 한 일러스트레이션은 현대의 많은 전위적 미술운동의 영향을 받았다. 그 중 하나의 집단적인 예술, 문학 운동인 초현실주의는 각 분야의 일러스트레이션에 영향을 미치며, 순수회화와의 경계를 무너뜨렸다. 초현실주의는 예술에 있어서 형식주의와 추상주의에 대비된 초현실속에서 인간적인 삶을 찾고자 하였고, 그 중 오토마티즘 기법은 시각적 자유연상 상태에서 의식적인 억압 없이 이미지를 그려내는 것으로 일러스트레이터들에게 자신의 상상력을 표현하기에 훨씬 창조적인 기법중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는 초현실주의 작가인 호안미로의 작품 속의 오토마티즘적 요소를 분석하고, 현대 일러스트레이션에 미친 영향에 목적을 두었다.

II. 본론

1. 초현실주의와 오토마티즘 기법

초현실주의는 1920년대 합리주의나 자연주의의 만능에 대한 반발로써, 인간 무의식의 세계를 밝혀내고자 하는 하나의 집단적인 예술, 문학운동이며 시대적인 산물이다. 초현실주의는 다다이즘의 영향을 받았지만, 다다가 시도했던 기존의 것을 파괴하는데 관심을 두기보다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에 따라 꿈을 추구하였다. 꿈은 현실의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게 하며, 인간의 이성에서의 자유와 해방을 추구하는 요소였다. 하지만 초현실주의에 있어서 꿈과 현실은 이질적인 두 가지 존재라기보다는 동질적 세계의 앞과 뒤라고 할 수 있다. 초현실주의는 상상의 세계를 빌려와 초현실 속에서 인간적인 삶을 찾고자 했으며, 현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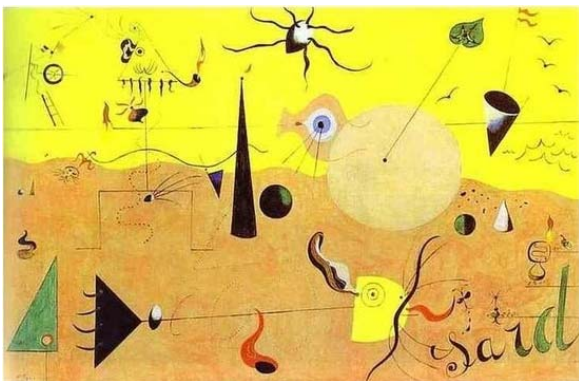
을 보다 이해하려는 태도를 지닌 일종의 휴머니즘이라 할 수 있는 예술운동이다.

오토마티즘은 초현실주의의 미술적 기법을 뜻하며 '자동기술'이란 용어로 해석이 된다. 기법은 심미적인 선입관이나 기성의 표현기술을 떠난, 무의식의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표현행위이다. 초현실주의의 최초의 방법으로, 다다이즘의 우연의 법칙에 기원을 둔다. 마치 심장의 박동처럼, 외적인 자극과는 무관하게 의식의 통제 없이 움직이고 기능하는 내적인 힘을 말하는 것이다. 오토마티즘의 핵심은 자발성과 즉흥성에 있다. 이성의 아무런 통제 없이 행해지고, 그렇게 표출된 선이나 형태, 또는 말은 자연히 무의식 세계를 반영하게 되고 보는 사람에게 있어서 또 다른 나의 실존을 느끼게 한다. 오토마티즘 기법은 초현실주의 운동의 초기에 주로 쓰여 졌으며 동시에 가장 대명사적인 기법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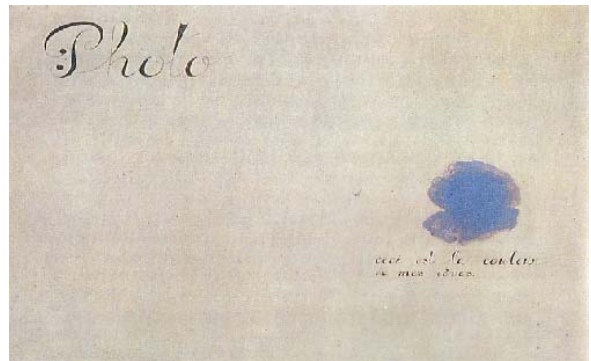
2. 오토마티즘 기법의 일러스트레이션

오늘날의 일러스트레이션은 과거의 의미전달에 있어서 보조적인 개념에서 벗어나 풍부한 감성과 그 내용, 즉 커뮤니케이션을 주도하는 능동적인 개념으로 변화하였다. 초현실주의는 그 자체가 접근하기 쉽고, 자유가 내재되어있으며 그 뿌리에 다다이즘, 낭만주의 등 여러 가지 근원으로 일러스트 표현법에 있어 다양함을 준다.

오토마티즘 기법은 작가들에게 새로운 추상적 형상성을 부여하고, 독자적 개성을 부여하였다. 그 대표적인 작가로는 호안 미로가 있다. 호안미로는 추상미술과 초현실주의를 결합하여 창의적인 작품세계를 보여준 거장이다.



▶▶ 그림 1. 카탈루냐 풍경화(사냥꾼) 1924-1925



▶▶ 그림 2. 이것이 내 꿈의 색채이다 1924-1925

카탈루냐 풍경화(사냥꾼)은 미로의 회화 언어가 갖는 창의성과 독창적인 유머감각을 보여준다. 생각을 환상적인 모양으로 나타냈으며, 형태와 위치가 부자연스러워도 짙은 수염, 날카로운 눈, 귀 기울인 모습은 사냥꾼의 수염 난 얼굴임을 알아볼 수 있게 한다. 이런 기호 언어의 표현은 미로가 동심과 유아적 표현방식에서 찾은 작품의 모티브라 할 수 있다. 미로의 작품이 사소하다거나 심지어 아이 같다는 평을 가지게 된 것은 초현실주의가 점차 그를 잠재의식으로 이끌었고, 그로인해 개별적인 세부로 구성하는 그림에 반발하면서 좀 더 단순한 언어로 표현하게 된 이유에서이다. 이러한 변화가 인상적으로 표현된 예는 흰색 무지 캔버스 천에 단순히 청색 타원형으로만 구성된 1925년작 그림이다. 화폭을 가로질러서는 대담한 필체로 "Photo/ceci est la couleur demes rêves(이것은 내 꿈의 색채이다)"라고 적혀있다. 그는 서정적이고 자유로운 표현을 전개해 나갔으나 특유의 엄격함으로 목표의 명확화를 추구하였다. 미로는 기교와 자신감으로 통제 불가능한 것을 지배하고 예측 불가능한 것과의 조화를 이루며 작업하였다. 이런 미로의 작품에서는 색채, 형태, 세부에서 소박함과 평범함을 제거하는 시적인 힘, 정밀성, 강력함을 엿볼 수 있다.

III. 결론

초현실주의 작가들 중 유일하게 유쾌하고 흥겨운 그림을 그려냈던 호안 미로의 작품은 20세기 초의 암울했던 사람들의 일상과 마음속에 생명을 불어 일으켰고, 인간정신의 자발성, 즉 인간의 상상력으로 현실에서 자

유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

초현실주의의는 정신활동으로써 이론적 현실성에 익숙한 어른들의 시각보다는 아이들의 사고의 관점과 많이 닮아있다. 그 어떤 종류의 지배에서도 벗어나 미학적, 도덕적 선입견을 떠나 이루어지는 사고의 구술기법인 오토마티즘 기법은 인간정신의 자발성에 기초를 두고 의식을 전달하는 목적미술, 즉 커뮤니케이션 회화의 주체인 현대 일러스트레이션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이로써 일러스트레이션은 감성을 자극하는 다양한 기법의 조형적 모색을 통해 질을 높이고 그렇게 표현된 이미지는 훨씬 풍부하고 무한한 독자적 특성을 발휘함으로써 우리 삶의 모든 형태들 속에 번져나가 시각적 심미의 질을 높여줄 것이다.

■ 참고 문헌 ■

- [1] 카트린 클링죄어 르루아, 초현실주의 p7-25, p74-79
- [2] 롤랜드 펜로즈, 호안 미로 p29-42
- [3] 신현숙, 초현실주의 p15-17 p88-92, p333-335